

가려진 이름과 시간의 결

December, 2019 | 이소진 에디터

page 1 of 18

가려진 이름과 시간의 결

사진가 구분창은 세심하고 예민한 시선으로 가려진 이름들을 수집한다.

시간의 결이 스민 풍경과 물건에 애착을 갖는 그에게 세상은 아직도

풍부한 탐구 대상이자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그 무엇이다.

Editor 이소진 Photographer 임상현 도움 한미사진미술관

사진이 예술로 여겨지지 않던 시절부터 곳곳이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온 예술가. 시간의 결이 스민 아름다운 물건에 마음을 뺏기고 미는 수집가. 늘 시야를 열어두고 새로운 것을 찾아 세상을 누비는 탐험가. 구분창 작가를 지칭하는 말들은 곧고 단단하다. 국내 1세대 예술 사진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가로 우뚝한 그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치열하게 사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한결갈게 시간의 결을 쫓았다. 시간성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천착해 작업한 '달', '백자', '비누' 시리즈는 오브제에 스민 세월의 무늬와 결을 드러냈다.

이번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 <Incognito>는 그 동안 많이 알려졌던 2000년대 이후 연작과는 다른 구분창 작가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라 특별했다. 그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곧 퇴사하고 독일에서 사진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긴 오후의 미행' 시리즈는 유학에서 돌아온 뒤 80년대 우리 사회의 면면을 포착한 젊은 작가의 시선은,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익명의 풍경들은 도시의 숨겨진 기호와 그것들을 일상에서 바라보는 구분창 작가의 일기 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 <Incognito>는 1980년대 스냅 사진인 '긴 오후의 미행' 시리즈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로 일상에서 포착한 사진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전시 명처럼 익명성, 즉 가려진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여다볼수록 감춰진 것들이 하나씩 보이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인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전시를 준비할 때 한미사진미술관 관장님이 카메라가 가진 스트레이트한 맥락을 보여주면 어떨지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찍은 '백자'^{Vessel} 시리즈는 스튜디오 오에서 세팅을 하고 일정하게 반복하며 찍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상의 사진들은 마주치는 순간 바로 찍지 않으면 지나쳐버리는 풍경이죠. 이번에는 카메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주자 생각했지요.





구본경, 「C 08, Lima, Peru, 2016」 ©구본경 Koo Bohne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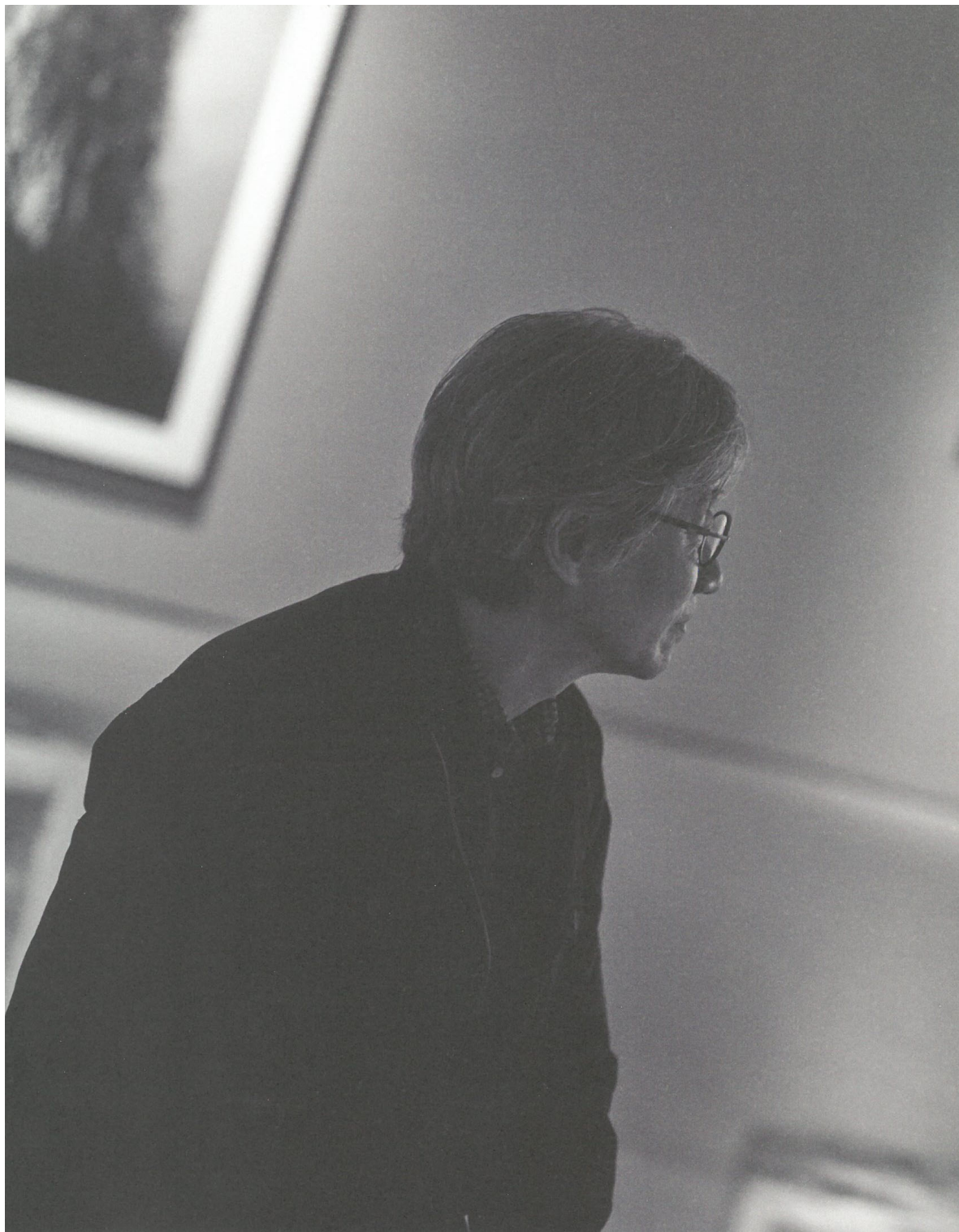
20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긴 오후의 미행' 연작에는 80년대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독일에서 약 6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살았던 곳이지만 어찌나 낯설던지요. 그때 길거리에서 스냅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독일의 정제된 색감에 비해 서울의 풍경은 날 것 같은 색감이 있었죠. 게다가 개발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파헤쳐 있었고요. 그런 느낌들이 나에게 신선하면서도 자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땐 길거리의 경찰도 무시됐고 티모도 많았죠. 그런 풍경들을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당시 분위기와 느낌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많이 찍던 곳은 세운상가 주변이었어요. 을지로, 종로의 뒷골목, 청계천, 마포... 서울의 오래된 다운타운 같은 곳들이고 사람 사는 느낌이 제대로 나는 곳이죠. 88서울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 새로 도시를 정비하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걸 찍었던 80년대에는 갤러리에서 스냅 사진을 작품이라고 보여주는 곳이 없었어요. 예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고요.

사진을 찍을 때 대상과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지나가면 없는 상황은 정말 그 순간 남아채듯이 찍어야 해요. 거의 순발력이지요. 어떤 것은 일부러 스쳐 지나갔지만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찍은 것도 있어요. 미꾸라지 사진(〈IC 17〉)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건데 여러 번 다시 갔어요. 움직임이나 빛이 내가 원하는 순간이 나올 때까지 찍었지요. 포대 위에 쌓인 눈의 형태, 비 온 뒤 아스팔트 발자국에 고인 물, 쏟아 버린 얼음덩이들은 그 순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흔적을 카메라에 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찍는 사람은 작가지만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수용자거든요.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느냐는 각자 쌓은 경험, 읽은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겠죠. 나는 답을 주는 것보다 각자의 몫으로 열어두고 싶어요. 에디터는 어떤 사진을 인상 깊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붉은색 옷을 입은 초상화를 크롬해 촬영한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손동작이 두드러지고 살짝 보이는 액자 틀이 누가 보아도 그림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옆에 놓인 작품을 보고,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추기경 작품과 같은 구도지만 서울에서 찍은 한 가족 사진이었죠.

둘 다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이 공통분모이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게 되는 재미가 있죠. 붉은 추기경은 옷이 주는 색의 감촉, 감춰진 듯한 몸의 느낌, 액자를 보는 순간 들었던 묘한 느낌 때문에 찍었던 거예요. 가족사진은 한참 전에 찍은 건데(추기경 작품 〈IC 08〉은 2016년, 가족 사진 〈IC 16〉은 2008년 작이다.) 구성원의 조합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다들 서로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 뭔가 숨겨진 운명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죠. 나는 운명적인 것 좋아해요. 어딘가 알 수 없는 것에 강하게 끌리지요. 이번 전시의 메인으로 걸린 〈IC 14〉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몽골에 갔을 때 어떤 빈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창문에는 누가 포스터를 붙였다가 떼었는지 갈끔하게 떨어지지 않은 종이의 흔적이 남았는데, 묘한 인상이었어요.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는 느낌이 좋았죠.





선생님의 작업에서는 시간의 흔적이나 결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는 삶이란 다 그런 흔적들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노력했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산다는 게 다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 아닐까요. 80년대 사진들은 치열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사진이었다면 지금은 삶이란 그런 치열한 것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어요.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되어서 작업이 더 추상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흔적들을 담는 것이죠.

하얀 벽에 담쟁이덩굴이 얽힌 〈화이트〉 시리즈나 〈백자〉 시리즈 작업을 하셨던 만큼 선생님께서 흰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화이트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색인 것 같아요. 모든 색의 빛을 다 겹치면 흰색만 남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흰색의 경지인 것 같아요. 청자는 화려한 맛이 있지만 달항아리 백자는 어떤 장식도 없이 담백하고 고고한 맛이 있죠. 한동안 화이트 작업을 많이 했을 때는 화면에서 지우고 빼면 어디까지 없앨 수 있나, 최소한의 이미지와 기호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가를 실험했어요. 점점 화면에서 많은 것들이 빠지고 하얀 이미지만 남은 것이죠.

평소 어떤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나요?

만든 사람의 장인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단지 고가의 명품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고민하며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정신이 스민 물건들이 제 눈에 띄게 되는 것 같고요. 전통 유물들도 많은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됐다고 봐요. 그런 애정을 쏟을 가치가 없었다면 깨지거나 없어지고 말았겠지요. 정신이 스민 물건들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백화점의 명품만이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다 보는 하찮은 것들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곤 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소장한 물건도 있으신가요?

많죠(웃음). 전시에 소개된 이 붉은 작품 (〈IC 04〉) 혹시 필 찍은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일본에 갔을 때 커피숍에서 점원이 주문을 받는 데 빨간색 색연필을 사용하더군요. 주문을 다 받고 나면 계산대 옆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획’하고 던지듯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다 보니 색연필의 심이 묻어 붉게 된 거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을 때 그 통이 눈에 띄는데 몹시 아름답게 보였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그토록 무의식적으로 붓질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정물인 거죠.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요만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커피숍에 색연필 두 자루를 사다 주면서 사정사정해 이 통을 받아왔습니다.

구분장, IC 14, Vianbator, Mongolia, 2012 ©구분장 Koo Bohneclans





〈서편제〉, 〈취화선〉, 〈시〉 등 수많은 영화 포스터와 패션지의 화보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든 패션이든 개인 작업이든 어떤 분야의 작업을 하든지 그 순간만큼은 그 일에 충실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요. 일종의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분야가 다른 것이 나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영화는 임권택 감독님과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몰랐던 전라도의 풍류나 배우가 가진 기운 등 새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각 분야에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씩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나는 그런 배움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많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최근 가장 흥미로운 일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있다 보니 최근에는 내 작업을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본에서 80년대 작업으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도록을 만들었고요. 작년 대구에서 열린 개인전 〈시작을 돌아보다, Early Works〉도 초창기 작업을 중심으로 했죠. 기존에 했던 작업 중 정리를 못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요즘 제일 많이 찍는 것은 황금이에요. 무욕의 오브제를 찍다가 갑자기 황금은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황금에 쌓인 시간과 여기에 거쳐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황금은 지금까지 유물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려 했던 권력과 시대는 결국 사라지고 없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황금을 사랑했을까 궁금해서 찍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삼 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일 이년 뒤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전시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오신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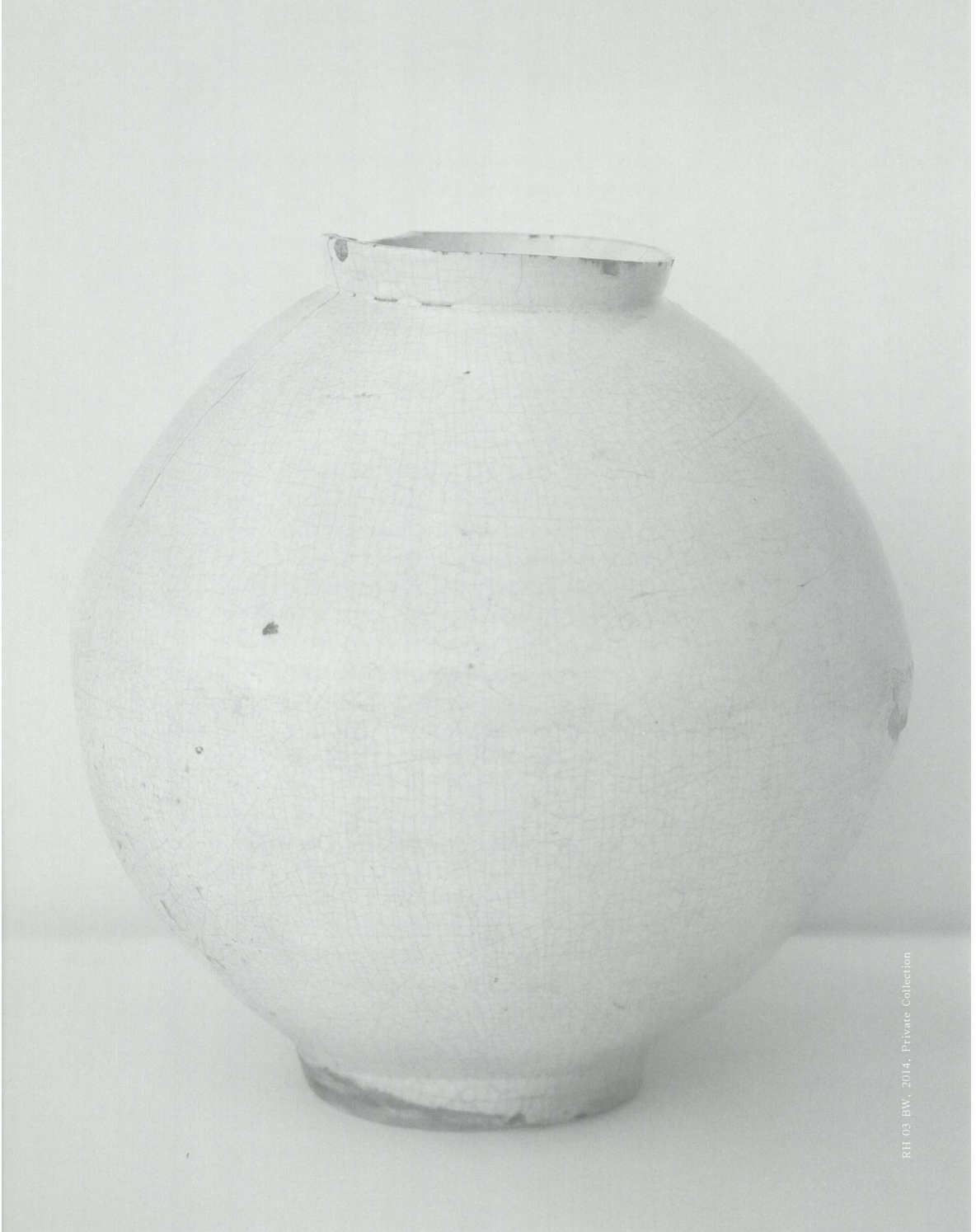
10월 말부터 도쿄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강남의 스페이스 22에서 전시를 여는데, 이 공간은 대안공간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보여줄 거예요. 80년대에 나는 어떻게 하면 사진의 평면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당시 사진이 예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던가 사진가로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어 독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이 많던 시절이었지요. 인화지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페마거나 스크래치를 낸다던가 하면서 평면적인 사진을 벗어나는 방법을 실험했던 시기예요. 전시 명인 〈Beyond the Silver〉의 '실버'는 사진의 감광재료인 은을 뜻합니다. 작품의 캡션을 보면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하는데, 보통 인화할 때 은염인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진의 회화적인 면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리저리 실험을 했어요. 치열했을 때의 몸짓이었죠.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했다 싶겠지만 결국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의 작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겠죠.

Exhibition

전시 〈Incognito〉 2019. 10. 12 ~ 2020. 1. 11. 한미사관아울란

전시 〈Beyond the Silver〉 2019. 11. 27 ~ 12. 26. 스페이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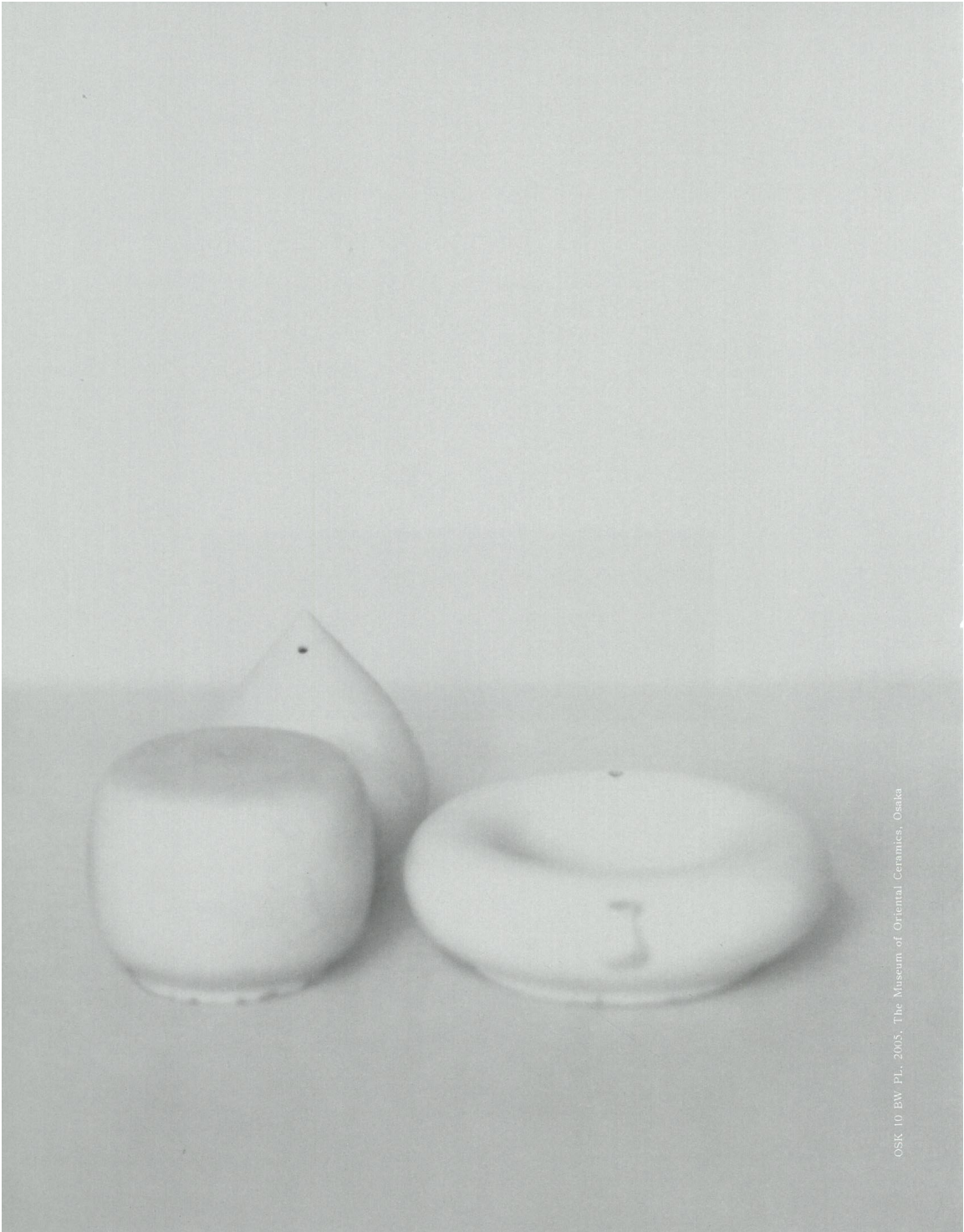
전시 〈Clandestine Pursuit in the Long Afternoon〉 2019. 10. 25 ~ 11. 22. Zen Foto Gallery(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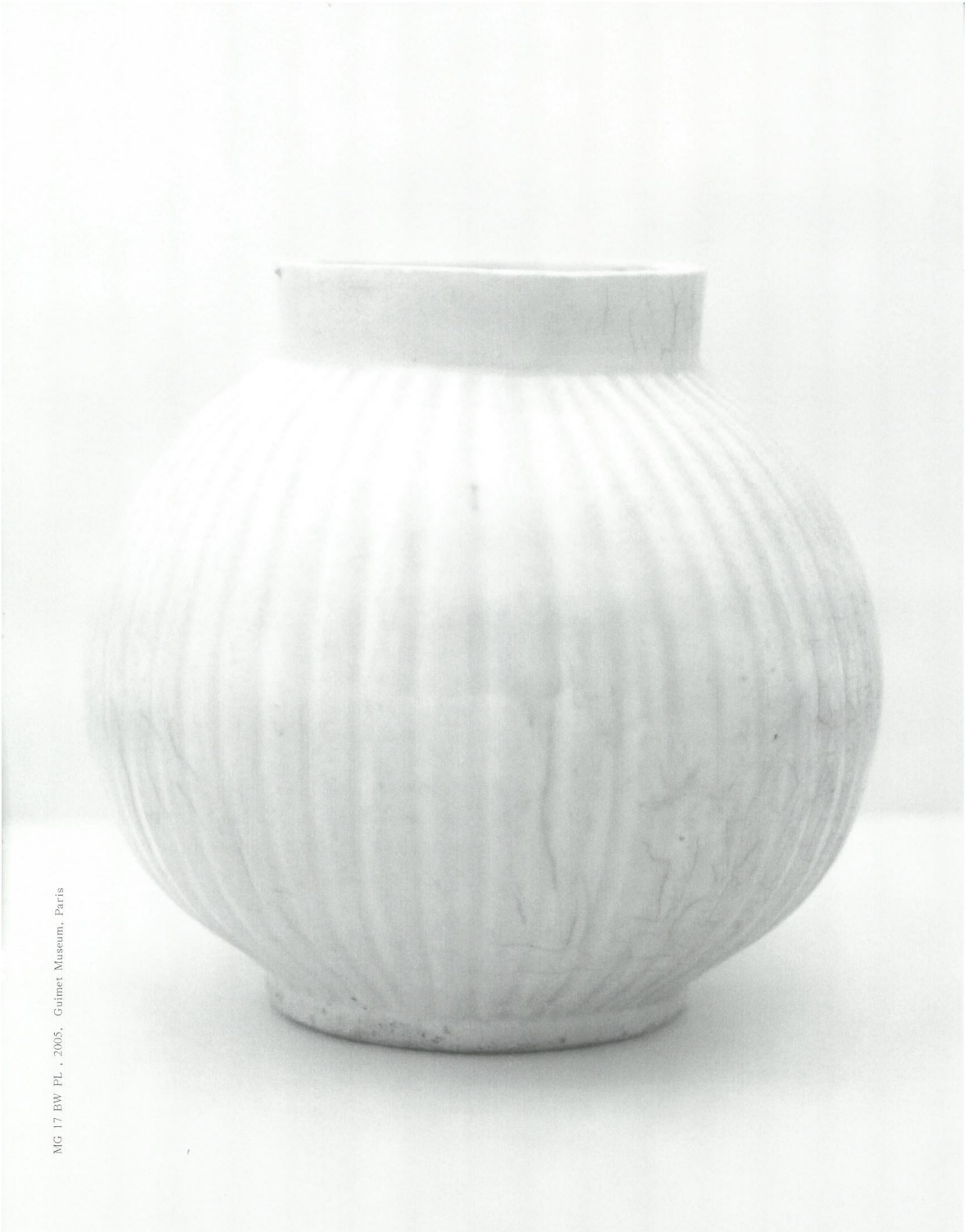
RH 03 BW, 2014, Private Collection

VESSEL

Photographer 구분창



OSK 10 BW PL, 2005,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MG 17 BW PL , 2005, Guimet Museum, Paris

부드럽고 어진 마음, 고요하고 섬세한 숨결.
스스로 겸손하여 더욱 고고하게 빛나는 백자의 미.

한국의 극치로 평가 받는 백자. 해곡 최순우 선생은 백자대호(白磁大壺), 즉 달항아리를 보면 잘생긴 부자집 맘느리가 떠오른다고 했다.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느낌이다.” 수화 김환기 선생도 집 뜰에 백자를 두고 틈틈이 보는 것을 즐겼다. 초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따스한 온기를 품은 그 미감에 반해 달항아리를 주제로 하는 작품도 여럿 남겼다. “회고 맑은 살에 구름이 떠가기도 하고 그들이 지기도 하며 시시각각 태양의 농도에 따라 항아리가 미묘한 변화를 창조한다…(중략) 한 아름되는 항아리를 보고 있으면 촉감이 동한다. 썩늘한 사기로되 따사로운 김이 오른다. 사람이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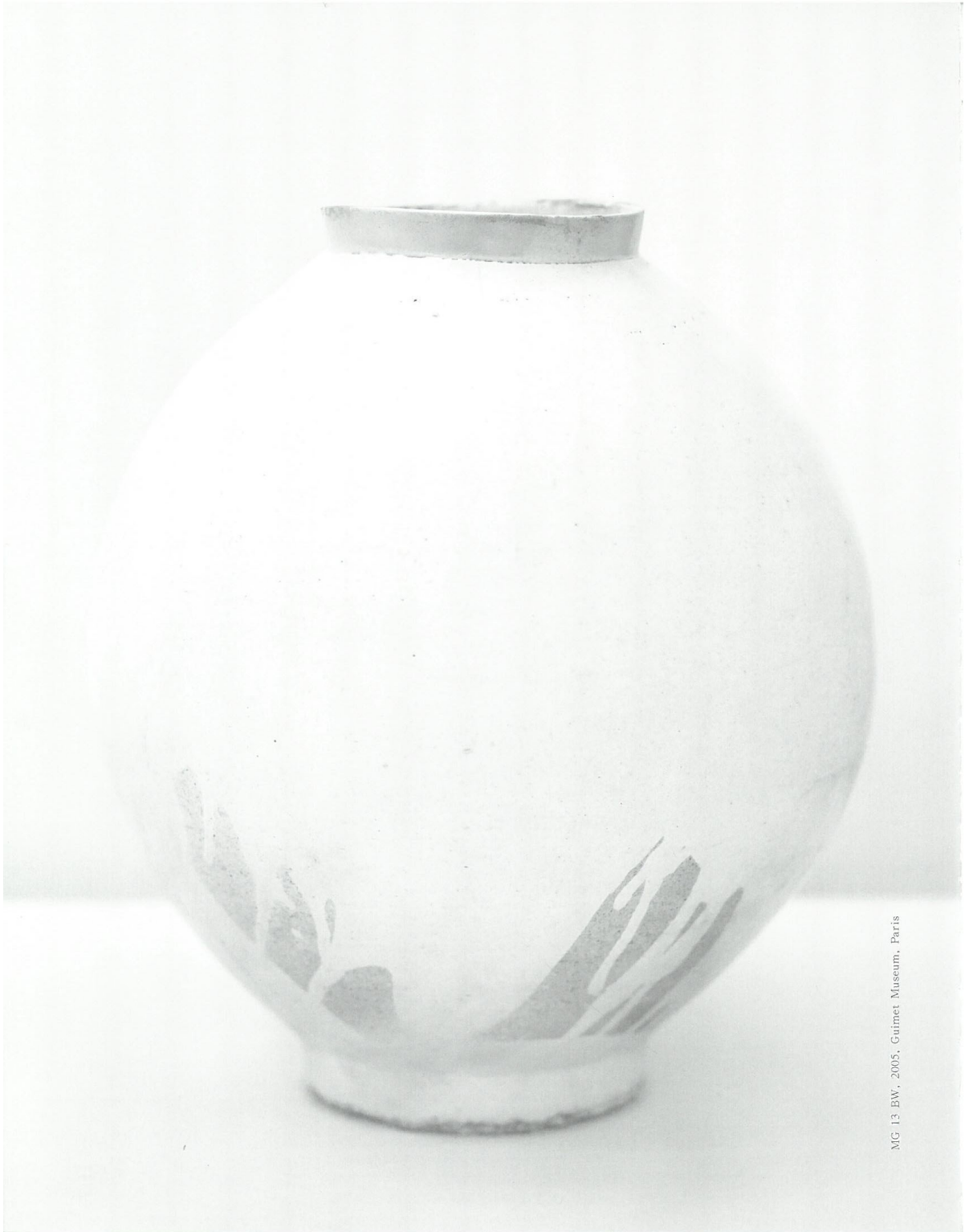
우연히 본 백자 사진 한 장에 마음이 흔들린 사진가도 있다. 오스트리아계 출신인 영국 도예가 루시 리의 집에 있던 하얗고 커다란 백자. 구분창 작가는 초월적인 인상에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로부터 15년 뒤 도록이나 박물관 안내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백자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고 싶어졌다. 한창 ‘탈’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던 때였다. 백자를 찍기 위해 국내외 16곳 이상의 박물관을 방문하고 촬영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대형카메라를 사용해 백자를 관찰했다. 초점을 약간 흐려 또렷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차분하며 명암의 대비가 크지 않은 작품은 초현실적인 세상 같았다. 백자에 서린 기품과 혼, 무욕의 아름다움, 장인의 영혼, 축적된 시간성을 오롯이 담아낸 <Vessel> 시리즈의 탄생이었다.

“백자의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이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고심했다. 인은 담은 백자의 외형적 형태보다는 그것의 내면에 흐르는 깊고도 단아한 감성을 파고들자는 것이었다. 세계의 박물관에 흩어진 우리 백자들을 찾아 떠났던 긴 여행을 마친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백자가 바로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리라.”

Editor 이소진 사진 제공 구분창 스튜디오



HR 10-1 BW PL, 2006, Berlin Museum



MG 13 BW, 2005, Guimet Museum, Paris

KRO 01 BW, 2004, Koryo Museum of Art, Kyoto

